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3차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2019.9.10.(화) 9:30~13:3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 3차 서류, PT/인터뷰 심의 >

3차 심의회의는 기선정된 연구생들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사전에 제출한 기획안과 PT발표 및 인터뷰를 통해 점검하고 이에 기반해 최종발표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에 지원 당시 조사연구계획의 핵심 취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를 얼마나 구체화시켰는지, 이를 통해 선정 당시 기대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심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멘토링과 인터뷰, 자료 조사 등 조사연구 수행의 충실성 및 성과와 최종발표 계획의 적합성과 설득력을 자세히 검토했고 이에 따라 예산안의 세부가 합리적인지를 점검 후 이에 근거해 신청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생이 전시장소 및 필자, 디자이너 등을 확정하고 예산안을 산정하였기에 예산안 자체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이거나 부풀려진 경우는 없었다. 그보다 문제가 된 것은 본래 제시했던 조사연구계획과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져 사업선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였다. 아카이브 구축 및 자료집 발간이 사업에서 핵심적인데 이 부분이 대폭 축소되거나 생략되고 전시에 거의 모든 예산을 할당해 선정의 핵심 근거를 이탈한 경우,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너무 크고 분산되어 있어 깊이가 박약하거나 기존의 선례와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연구가 단순 전시 준비 이상이 아니거나 본래 작성한 기획 취지와 완전히 무관한 결과를 들고 와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 경우, 최종 결과물이 선정 당시 기대한 효과와 상당한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 문제라고 판단된 사례들이다. 시각예술분야의 지원 규모가 타분야에 비해 크지 않고 연구생이 전시 규모에 맞추어 적정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느 이상 심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는 가능한 최대금액의 지원금을 할당했고, 심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결정했다. 후자의 경우에도 삭감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비례 책정하기보다 상징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을 취했다. 최종결과 발표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취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발표 실행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차세대 예술가 육성이라는 보다 큰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상징적 감액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시각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감액을 결정한 의도가 전달되길 바란다.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모든 지원자들이 물리적으로 어느 이상의 성실성을 보여주었다. 보완해야 할 점은 연구조사의 관점 및 방향 같은 내용적 예리함이라 생각된다. 특히 기획의 경우 행정적 전시 진행뿐 아니라 기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리서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산포된 작업 및 자료들을 꿰는 기획자의 관점과 연구가 없다면, 기획전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그저 단순히 관련 작업들을 그러모은 그룹

전에 불과하게 된다. 작가의 경우도 단순한 개인전 준비로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작업 세계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기금을 사용하시기를 바란다. 조사연구라는 사업 취지와 떨어져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없어질 경우 사업 자체의 존립 근거가 무너질 수 있다. 우수한 최종발표 결과물을 통해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 분야 심의위원 일동